4. 독서의 방법

무릇 글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책을 대한다.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자세하고도 깊이 생각하고 익숙하게 읽어 의미를 깊숙이 理解(이해)하여, 매 구절마다 반드시 實踐(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한다. 만약 입으로만 읽어서 마음에 충분히 理解(이해)되지 않고 몸으로 實踐(실천)하지 않는다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이니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먼서 『소학』을 읽어 어버이를 섬기고 兄을 恭敬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恭敬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親하게 지내는 道理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익혀서 힘써 實踐(실천)해야 한다. 무릇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한 책을 충분히 읽어서 의미를 다 깨달아 꿰뚫어 통달하고, 의문 나는 것이 없는 이후에 다시 다른 책을 읽는다. 많이 읽기만을 탐내고 책을 통해 얻는 것에 너무 힘쓴 나머지 바쁘게 이 책 저 책 섭렵*해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 「독서장」)

*글 : 책 곧 책의 내용을 가리킴 *섭렵 :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하는 것

율곡 선생의 독서법

독서의 목표	이치를 탐구하여 선을 밝힘
독서의 방법	• 바른 자세 • 마음 집중 • 깊이 생각하기 • 깊숙이 이해하기 • 실천에 적용하기
독서의 순서	1. 小學(소학) : 오륜의 실천
	2. 大學(대학), 혹문(或問) : 공부하는 목표와 방법과 단계
	3. 論語(논어) : 공자의 가르침(공자와 제자들의 말과 행동)
	4. 孟子(맹자) : 맹자의 가르침(맹자와 제자·왕들의 대화와 행동)
	5. 中庸(중용) : 유교철학의 바탕(철학적 이론)
	6. 詩經(시경) : 고대 중국의 시와 노래. 정서함양에 도움
	7. 禮經(예경) : 고대 중국의 예법과 통치제도
	8. 書經(서경) : 고대 중국의 역사와 왕들의 교훈
	9. 易經(역경) : 고대 중국의 점치는 책. 상황과 미래 예측
	10. 春秋(춘추) : 공자가 지은 노나라 역사
	11. 기타 : 송나라 성리학자들의 서적, 역사책

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의 종류를 나열한 표이다. 아래 표에 여러분이 최근 몇 달 동안 읽었던 책이 속한 분야에 ○ 표시를 해 보시오. 또 율곡 선생이 독서의 순서에서 말한 책을 대충 분류하여 △ 표시를 해 보시오.

철학(윤리)	문학	역사	수학	과학	기술(공학)
경제(경영)	종교	외국어	취미(오락)	풍습(여행)	기타

2. 앞의 글과 도표의 내용을 보고 율곡 선생이 권장했던 독서법과 여러분들이 하는 독서법의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구 분	율곡 선생의 독서법	나의 독서법
차이점		
차이에 대한 이유		

3. 조선시대 율곡 선생의 독서법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독서법이나 변하지 않은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4. 앞의 글에서 “만약 입으로만 읽어서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논다.”는 말이 무엇인지 각자 말해 보세요.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열매	밟을	읽을	쓸	풀	날
한자	實	踐	讀	書	解	經
음	실	천	독	서	해	경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事實(□□) : 실제로 있었던 일

讀者(□자) : 신문·잡지·책 등의 출판물을 읽는 사람

教科書(□과□) :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

解決(□결) : 얽힌 일을 풀어 처리함

經驗(□험) :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

★팁

한자도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예) 經-날실, 세로, 경험, 지나다
過-지나다, 지나치다, 잘못, 넘치다, 나무라다
書-글, 글씨, 편지

3.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　　)안에 써 넣어 봅시다.

가. 도덕교과는 實踐(　　)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나. 讀書(　　)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다. 讀書(　　)를 할 때는 내용이 理解(　　)될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라. 일주일이 經過(　　)했는데도 아직 한 권을 다 읽지 못했다.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身不行(□□행)이면 則書自書我自我(즉□□□□□□)니
何益之有(하익지□)리오?

• 풀이 : 身-몸/不-~하지 않다/行(행)-행하다 곧 실천하다/則(즉)-곧 ~이다 또는 ~한다/自-말미암다/書-글/我-나/何(하)-무슨/益(익)-유익
• 해석 :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이니 무슨 익이 있겠는가?

刮目相對(괄목상대)

『三國志(삼국지)』「오지(吳志)」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오나라 초대 황제인 손권을 도와 싸우던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여몽은 적벽대전에서 위나라 조조의 80만 대군을 무찌른 이름난 지략가였어요.

여몽은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무예에 소질이 있어 군에 입대한 후 수많은 전공을 세워 장군의 위치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때까지만 해도 명령에 따라 싸움만 잘했을 뿐 병법이나 지략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 그를 늘 안타깝게 여기던 손권은 그가 책을 많이 읽도록 권했지요. 그러자 그는

"저는 장수로서 할 일이 많아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자 손권이 말했어요.

"한 나라의 장군인 그대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한 나라의 군주인 내게는 얼마나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다네."

그래서 여몽은 讀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죽마고우였던 노숙이라는 사람이 마침 自己 부대를 시찰하던 여몽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와 이야기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고 말았어요. 예전에 그가 알던 무식한 여몽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보니 자네는 이전 오나라의 골목대장 여몽이 아니네 그려."

그러자 여몽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상대를 三日을 만나지 못해도 눈을 비비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똑똑히 봐야 하는 법이네."

훗날 촉한의 명장 관우를 생포한 사람은 조조가 아니라, 이렇게 讀書를 통해 지략을 키웠던 여몽이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후세에까지 남기게 되었어요.

관련 인성 가치	공통